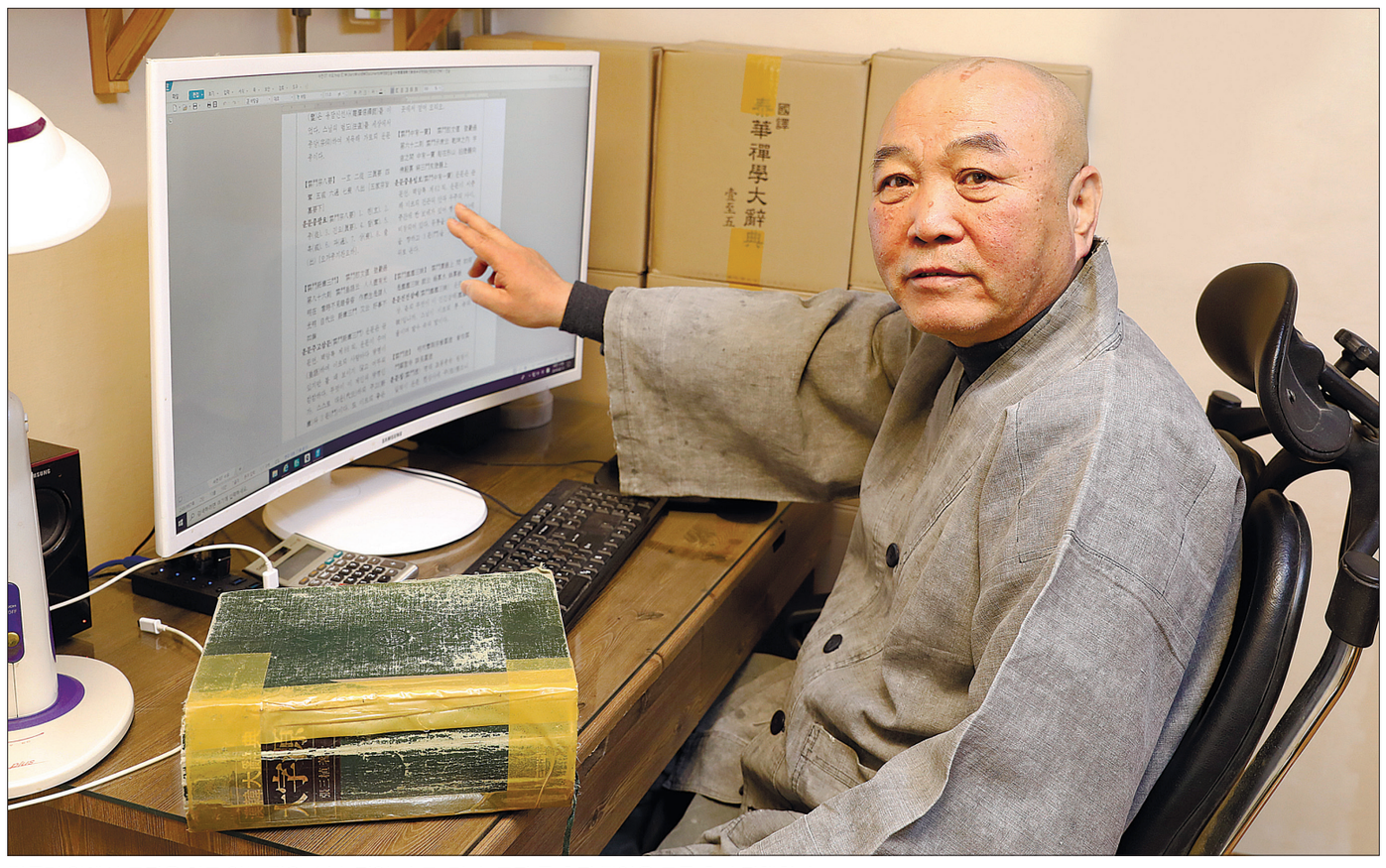
“불립문자? 공부 포기한 사람이 하는 말”

‘정원 스님’ B1면에서 계속

내가 사전을 만든 이유는
1992~2002년 대장경 등 2차례 열독
의문 해결할 좋은 사전 없어 시작
원문 복기 안되는 경전 번역은 잘못
정신 · 물질 힘들어도 후학위해 노력

나의 수행 · 원력의 뿌리는 스승
일우 스님을 은사로 1969년 출가해
첫 배움 선문염송… 선 · 교 모두 중시
붓 1천 필 소모한 사경 수행도 시작
좋은 스승 만난 것도 사전 편찬 도움

한국불교, 공부 좀 하세요
옛 스님들 경전 통달… 교학에 밝아
10년 집중해야 깨달음 일견에 이르러
“옷은 새 옷이, 책은 고전이 좋습니다”
사부대중 모두 고전에 관심 갖기를



컴퓨터 앞에서 조판을 하고 있는 정원 스님. 편역, 수교, 타자, 조판 등 출판 작업을 모두 혼자 진행한다.

“한문불전의 역한가(譯韓家)들은 직역하는 자가 드물게 있다. 그러나 많이들 이르기를 나는 직역한다 하거니와 정원이 이르나니 만약 능히 번본(翻本)으로 방불하게 원본을 복기(復記)하지 못한다면 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오번(誤翻)이 있을까 염려스럽다고 이른다.”

모든 것은 스승에게 배웠다

11년간의 간경 안거부터 사전 편찬, 요즘에는 드문 직역체의 번역 스타일. 이는 모두 스승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정원 스님의 은사는 일우 스님이다. 오두막 한 칸에 기거하며 수행한 일우 스님은 당시 숨겨진 선지식으로 회자되고 있었다고 한다.

정원 스님은 1969년 일우 스님을 친척 소개로 찾아가게 된다. 이미 불교에 뜻이 있던 터라 곧장 질문을 던졌다. “스님, 생사는 열반이죠.” 그러자 일우 스님이 “이놈아 말은 누가 못하냐”고 일갈하며 폭포수 같은 법문을 쏟아냈다. 당시 속인 정원은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다. 결국 일우 스님을 쫓아다니다가 출가를 하게 됐다.

출가한 정원 스님에게 스승은 사집이나 율장을 가르치지 않았다. 제일 먼저 던져준 것이 〈선문염송〉이었다. 스승이 번역하면 제자를 이를 받아썼다. 이는 정원 스님에게 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직역 스타일의 번역도 당시 스승에게 배운 것이다.

또한 일우 스님은 제자 정원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문염송〉 30권을 모두 사경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를 믿고 정원 스님은 1978년부터 사경 수행을 시작했다. 〈선문염송〉은 물론 〈금강경〉을 1000번을 서사했고, 이후에는 여러 경전과 어록을 사경했다. 이를 통해 약 1000필의 붓이 닳아 없어졌다.

“사경 수행의 이익은 집중입니다. 모든 수행은 오롯이 10년을 집중해야 합니다. 은사 스님도 그러셨습니다. 기도가 들어오면 1주일 간 잠도 자지 않고 염불을 하셨습니다. 석달 정도는 자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스승님의 이 같은 모습을 배우고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사가 더 경전을 보았다

경전과 선 수행을 모두 강조했던 일우 스님의 가르침은 정원 스님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정원 스님은 경전을 보지 않는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뛰어난 선사가 되고 대강백이 되려면 대장경을 봐야 한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교 공부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경전과 어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옛 스님들에게는 일상이었지만, 지금의 한국불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일본불교의 재가자들은 〈벽암록〉 원전을 찾아봅니다. 한국은 이를 보지 않아요.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없으니 스님들도 배우질 않는 것이죠. 안 보니 불교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원 스님은 옛 선사들이 박학다식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가 사전에 유교나 도가 등의 주석을 단 이유는 선어록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옛 선사들은 경전뿐만 아니라 외전까지도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분양선소는 대장경을 6번 보았고, 영명연수도 3번을 보았다고 하죠. 선사도 강사보다 더 경전을 보았습니다. 선종을 공부하면서 교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방편이다

정원 스님은 자신이 발간한 모든 역 · 저서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한 명이라도 더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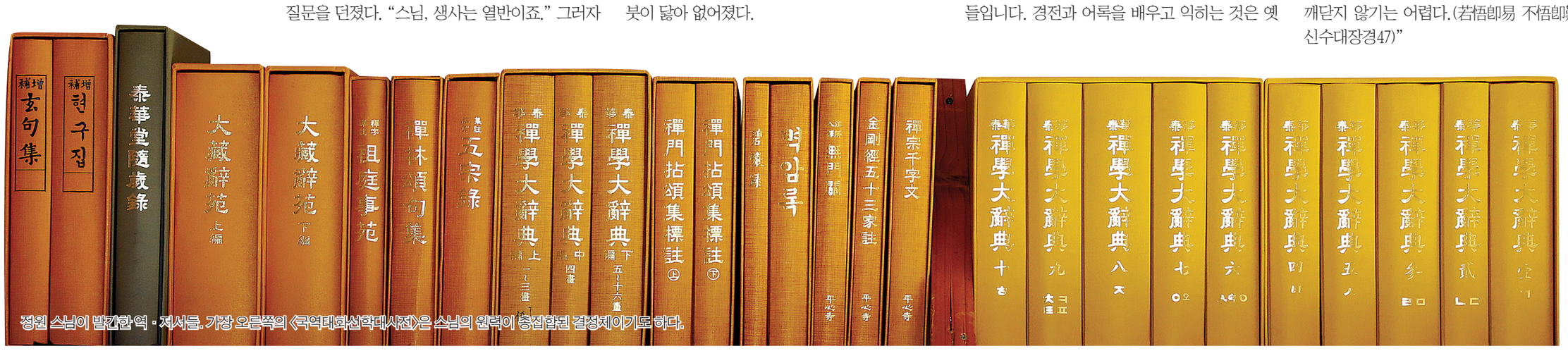
“어차피 사는 사람도 없어요. 굳이 자료를 가지고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공개하면 한국불교 대중이 좀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고전을 봤으면 합니다. 옷은 새옷이 좋고 책은 고서가 좋은 법입니다.”

인터뷰의 말미, 불교는 무엇인지 물었다. 스님은 ‘방편(方便)’이라고 곧바로 대답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그 소질에 따라 임시로 행하는 편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방편이 왜 불교일까?

“정해진 것은 없어요. 맞고 옳은 것도 없습니다. 이를 알면 시비가 사라집니다. 방편을 몰라 시비하고 우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깨우치겠다는 것도 집착입니다. 깨우치면 좋겠지만, 못 깨우쳐도 상관없습니다. 그에 맞춰 부처님은 방편법을 설하셨습니다.”

스님은 자리에 앉아 다시 조판 작업을 시작했다. 책상의 한 켠에는 스님의 손때가 묻어 이제는 해어진 낡은 사전이 있다. 어쩌면 스님은 사전과 저서를 통해 후학들에게 선학을 배우기 위한 방편을 전하고 있을지 모른다.

창밖으로 풍경소리가 들린다. 스님이 던진 일구(一句)를 다시 곱씹어 본다. “깨닫기는 쉬워도 깨닫지 않기는 어렵다.(若悟卽易 不悟卽難, 대정신수대장경47)”



정원 스님이 발간한 역 · 저서들. 가장 오른쪽의 〈국역태화선학대사전〉은 스님의 원력이 총집합된 결정체이기도 하다.

주문배송 02-568-1611 | www.chunggood.com
청굿
낫토가 아닙니다
굿모닝 생청국장 종주국의 자존심
우리 몸에 더 잘 맞는 우리 식품,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전통발효음식 K-Food!
특허 받은 우리 균주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
냄새도 안 나네?
無 첨가제
無 방부제
천연꿀
100% 국산콩
생청국장

이계호 교수의 굿모닝 생청국장이란?
청굿 굿모닝 생청국장 44g X 2개입
|주문배송| 02-568-1611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란?
전통과 과학이 만나 완성된 “생청국장”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연구기획과제로 선정된 국가 R&D 프로젝트입니다.
이계호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
2016년 ~ 2020년 54개월간 청국장의 과학화, 표준화 작업
표준화(균주 및 제조 공정) → 활용다양화
유해물질 최소화: 바이오제닉 아민,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유해미생물, 냄새
유익물질 최대화: 이소플라본, 아미노산, PGA, 비타민 K2
활용다양화: 제품의 기능, 모양, 질감, 맛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성별, 세대별, 국가별 수요 확대
특허번호 (제10-1860836호)
떠먹는 생청국장, 왜 더 좋은가?
특허받은 전통 우리 균주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균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유익물질을 극대화하여 청국장의 특유의 냄새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일본의 바실러스 낫토균을 능가하는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균' 1,000억마리를 담았습니다.
과학화/표준화 (균주 및 제조공정) → 유익 물질 최대화 / 유해 물질 최소화 → 청굿
순창 전통 장류에서 발굴한 장 건강에 좋은 균주로 뛰어난 내산성, 내담즙성, 혈전분해활성, 유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가 뛰어나며 바이오제닉아민과 같은 유해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더 잘 맞는 우리 식품
늘어나는 장 속 유해균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꼭 맞는 균주! 청국장에서 찾았습니다.
순창군 (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5개 대학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안전 먹거리 기본 회복 전도사 이계호 교수 주도 연구
발효 공정의 과학화, 균주표준화, 제조공정표준화
논문 13건, 특허 9건, 다양한 학술지 발표 / 수상 (22 / 2)
장내 미생물 균총 변화 분석을 통한 장기능 개선 기능성 검증